

# Haber 동사의 속성에 관한 연구\*

서소영

(전북대학교)

**Seo, Soyoung. (2014). A Study of the Verb HABER in Spanish.**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2(3), 131-151. In Spanish, HABER serves as an impersonal verb in the third person singular to denote existence. This impersonal verb HABER is similar to the English existential construction THERE IS. But the constructions THERE IS in English use different ways from the constructions HABER in Spanish. English employ THERE IS or THERE ARE. The third person singular forms of the existential verb HABER in all tenses are impersonal. In this paper, we have supposed that Y in the verb HABER is derived from the Lexicon. In Syntax, we have proposed that the existential constructions with HABER are derived from the possessive verb TENER. The existential clitic Y incorporate to the possessive verb.

**주제어(Key Words):** 비 인칭 동사 HABER(the impersonal verb HABER), 존재 접어(the existential clitic), 어휘부(Lexicon), 소유 동사 TENER(the possessive verb TENER). 존재 구문(the existential constructions).

## 1. 서론 및 목적

스페인어 문법에서 존재 동사 haber 구문은 비인칭 구조로서 다른 일반 동사로부터 구별되는 특수 동사로 취급되어 왔다. 즉 스페인어의 다른 일반 동사들과 달리 주어 명사구와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최근 생성문법 내에서 언급한 존재 동사는 소유 구문, 장소 구문 등과 연계되어 연구되어 왔다 (Freeze, 1992). 소유 동사 대신 존재 동사 be를 통해 소유를 표현하는 언어를 연구하고 이를 영어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한국어도 이와 같이 존재 be를 통해 소유를 표현하는 언어이므로 한국 학생들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분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Freeze (1992) 분석을 스페인어 존재 동사에 적용하고자 할 때 몇 가지

---

\* 이 논문은 2014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문제점에 부딪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특수 동사로 알려진 존재 동사 *haber* 구문을 통사적으로 재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고전 스페인어 자료들을 통해 존재 *haber* 동사의 유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haber* 동사가 소유를 의미하는 소유동사로 사용되었었고 이로부터 존재 용법이 파생되었음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존재 동사 *haber*에 관한 새로운 통사적 분석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현대 스페인어에서 존재 동사 *haber*와 소유 동사 *tener* 간에 어떠한 통사적 연계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Haber 동사 구문의 통사적 특징

스페인어의 존재 동사 *haber*는 다른 일반 동사들과 달리 비인칭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 서 통사적으로 확연히 구별된다. 즉 동사 뒤에 따르는 의미적 주어 명사구와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Gili Gaya (1986)가 지적하고 있듯이 *haber* 동사는 비인칭 주어 구문에 해당되며 3인칭 단수 형태로만 쓰인다.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sup>1)</sup>

- (1) a. Hay una mujer en el bar.  
 '(There) is a girl in the bar'  
 b. Hay unas mujeres en el bar.  
 '(There) are some girls in the bar'

위 예문들 간의 대조에서 볼 수 있듯이 스페인어 존재 동사 *haber*는, 영어에서와 달리, 의미적 주어 명사구의 수 형태와 상관없이 3인칭 단수 형태를 취한다.

1) 현대 중남미 스페인어에서 주어 명사구가 복수일 때 *haber* 동사 역시 복수 형태를 취하는 구문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에 구어체뿐만 아니라 문어체를 포함하여 공식적인 문서들에서도 사용된다 (Fontanella de Weinberg, 1992).

(i) Los signos de nuestro tiempo son parcialmente distintos de los que *habían* en tiempos del Concilio...(La Nación, 10-XII-85).  
 'The signs of our time are partially distinct of those that was in times of Concilio...'  
 (Fontanella de Weinberg, 1992. pp.36-37)

그러나 이러한 방언적 요소는 중세 스페인어에서 *haber* 동사가 소유 동사로부터 존재 동사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현대 중남미 스페인어에 잔류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존재 구문의 또 다른 통사적 특징으로 한정성 효과를 들 수 있다. 즉, 스페인어의 존재 동사 haber 구문에서 후치 명사구는 한정성 속성을 지니지 않는다.

- (2) a. Hay un error en esta página.  
 '(There) is an error in this page'  
 b. Había muchos/ pocos/ varios/ Ø alumnos en la reunión.  
 '(There) was many/ some/ several/ Ø students in the meeting'
- (3) a. \*Hay el error en esta página.  
 '(There) is the error in this page'  
 b. \*Había los/ estos/ eos/ tus alumnos en la reunión.  
 '(There) was the/ these/ those/ your students in the meeting'  
 (Escandell Vidal & Leonetti, 1998, p. 261)

위 예문이 보여 주듯이, 존재 동사 haber는 부정 명사구만을 허용한다.

또한 이러한 존재 동사 구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구문적 특징으로 명사구의 후치를 들 수 있다. 즉 존재 동사 haber와 더불어 사용되는 명사구는 반드시 후치해서 사용된다. 이와 같은 후치 명사구는 통사적으로 목적어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목적격 대명사로 대체 가능하다.

- (4) a. Hay un error en esta página.  
 '(There) is an error in this page'  
 a'. \*Un error hay en esta página.  
 'An error is in this page'  
 b. Sí, lo hay.  
 'Yes, it is' (Escandell Vidal & Leonetti, 1998, p. 261)

그렇다면 이러한 존재 haber 동사 구문은 직접 목적어를 취하는 다른 타동사들과 통사적으로 동일하게 분석될 수 있는가? 실제 자료들을 찾아보면 분명하게 다른 타동사들과 구별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에서 사람이나 동물이 목적어로 나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치사 a가 사용된다. 하지만 존재 haber 구문에서는 사람이 목적어로 나와도 전치사 a를 수반하지 않는다. 이는 존재 동사 haber가 부정 명사구만을 후치 명사구로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언급한 존재 동사는 통사적 측면에서 일반 타동사로부터 구별된다.

- (5) a. Hay un hombre en el jardín.  
 '(There) is a man in the garden'  
 b. Allí había dos niños. 'There were two boy'

전형적인 비 인칭 구문으로서 직접 목적어를 보어로 취하는 특별한 동사 형태로 알려진 스페인어의 존재 동사 haber 구문은 통사적으로 재 분석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존재 동사 haber 구문에 관한 통사적 고찰 및 구문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2.1 존재 동사 및 소유 동사에 관한 기존 분석 (Freeze, 1992)

최근 생성문법적 관점에서 영어 "There is"에 해당되는 존재 동사에 관한 분석은 존재, 장소, 소유 구문 간의 연계성을 설정한 Freeze (1992)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으로 Bach (1967)가 영어 have동사를, 그리고 Guéron (1986)이 불어 avoir 동사를 be/être와 같은 일련의 계사형태로 분석한 이래, 생성문법 연구에서 have/avoir에 상응하는 소유동사는 존재 be로부터 파생된다는 가정이 제시되어 왔다. 특히 Freeze (1992)는 존재 be를 통해 소유를 표현하는 인도어의 자료들에 근거하여 소유 동사, 존재 동사, 장소 동사 등이 동일 구조에서 파생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Kayne (1993, 1994)의 분석에서도 또한 살펴볼 수 있다. Freeze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 a. The book is on the bench.  
 b. There is a book on the bench.  
 c. Lupe has a book. (Freeze, 1992, p.553).
- (7) a. Mäi hindustaan-mëë thaa.  
 'I India-in Cop-1sg-masc-past'  
 "I was in India"  
 b. Kamree-mëë aadmii hai.  
 'room-in man Cop-3sg-masc-pres'  
 "There is a man in the room"  
 c. Larkee-kee paas kuttaa hai.  
 'boy-obl-GEN proximity dog Cop-3sg-masc-pres'  
 "The boy has a dog" (Freeze, 1992, pp.555, 576)

위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존재 be로 소유를 표현하는 인도어 구문에서 소유 의미는

존재 동사 *be*에 상응하는 동사가 도입되어 표현된다. Freeze는 (7)의 인도어 예문들에 근거하여, 장소를 나타내는 문, 존재 구문 그리고 소유 구문은 모두 동일한 구조로부터 파생된다는 점을 가정한다. 이러한 분석 내에서, ‘장소 (locativo)’와 ‘존재/소유 (existencial/posesivo)’ 등의 의미 해석상에 있어서의 차이는 통사적 파생과정에서부터 비롯된다. 구체적으로, 장소 구문에서 Theme이 주어위치로 이동, 장소 구문이 도출되는 반면, 존재 구문이나 소유 구문에서는 존재를 나타내는 명사구나 소유자의 인상을 통해 파생된다. 즉, 이러한 분석 내에서 소유 구문의 소유자는 일종의 ‘장소 논항’으로 이해된다(Lyons, 1967, 1968, Guéron, 1986). 이러한 분석은 존재 동사와 소유 동사 간에 연계성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연구로 사료된다. 그러나 Freeze 분석을 스페인어 및 다른 언어 자료에 적용해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닌다.

## 2.2 기존 분석의 문제점

존재 동사는 소유 동사와 동일 구조에서 파생된다는 Freeze (1992) 분석은 다음 여러 언어 자료들을 살펴볼 때 기술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존재 *be* 동사를 통해 소유 구문을 표현하는 아일랜드어 자료들을 살펴볼 때 약간의 문제점을 지님을 알 수 있다.

- (8) a. Tha a'min anns a'phoit.  
       'Be the flour in the pot'  
       b. Tha min anns a'phoit.  
       'Be flour in the pot'  
       c. Tha an peann aig Màiri.  
       'Be the pen in María' (Harley, 1996, p.27)

장소를 표현하는 구문과 달리 존재문과 소유문에서 존재를 나타내는 명사구와 소유자가 동일하게 이동함으로써 문이 파생된다는 Freeze 분석은 위의 아일랜드어 자료들에 적용해볼 때 구조적 문제점을 수반한다.

또한 Freeze (1992) 분석을 스페인어 존재 동사 *haber* 구문에 적용해볼 때 몇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언급한 바대로, Freeze 분석 내에서 존재 구문과 소유 구문은 장소 전치사를 수반하는 존재 명사구 혹은 소유자 인상을 통해 파생된다. *be*를 통해 소유를 표현하는 인도어 자료에 근거하여 존재, 장소, 소유 구문이 모두 동일 구조에서 파생된다고 본다. 또한 인도어 자료에서 나타나는 장소 전치사가 영어 구문에도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언급한 영어 *be*동사는 외현적 혹은 추상적 장소 전치사 *P*를 수반한다고 본다. 즉 존재 구문의 경우 외현적 장소 전치사를 수반하는 반면 소유 구문은 추상적 장소 전치사를 지니는 것

으로 분석한다. 이와 같이 장소, 존재, 소유 구문이 동일한 통사구조에서 파생된다는 Freeze의 분석은 be 동사를 통해 장소, 존재 구문을 표현하는 영어에서는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페인어에서는 영어의 be 구문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된다. 즉 존재 구문은 haber 동사를 통해서 표현되는 반면 장소 구문은 estar 동사를 사용한다. 이외에도 일반 계사 형태로서의 be는 스페인어에서 ser 동사를 통해 표현된다. 이러한 ser 동사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행사, 사건 등의 존재를 의미할 때 존재 구문을 유도할 수 있다.

- (9) a. Hay unos niños en el jardín.  
 ‘(There) are some boys in the garden’  
 b. Los niños están en el jardín.  
 ‘The boys are in the garden’
- (10) a. Juan es inteligente.  
 ‘Juan is intelligent’  
 b. La boda es en la iglesia.  
 ‘The wedding is in the church’  
 c. La conferencia es en la aula 3.  
 ‘The conference is in the class 3’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스페인어에서 존재 구문과 장소 구문은 서로 다른 동사로 표현되며 통사적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지닌다. 예를 들어, 존재 동사 haber는 단수 형태만을 취하는 비인칭 구문인 반면 estar 동사는 명사구와 수 일치를 이룬다. 또한 2.에서 지적한 바대로 존재 동사 haber는 후치 명사구만을 허용하는 반면 estar 동사는 전치 명사구 역시 취한다는 점에서 통사적 차이를 드러낸다. 또한 존재 동사 haber는 한정성 효과를 지니는 반면 장소 동사 estar는 이를 수반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스페인어의 일반 계사 동사 ser와 비교해볼 때 역시 동일하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영어에서는 be 동사가 장소문과 존재문을 모두 표현하므로 이를 동일 통사구조로 분석 가능하지만 이를 스페인어 관련 구문에 적용하고자 할 때 문제점이 드러난다. 즉, 스페인어에서 존재 동사 haber는 통사적 측면이나 어원적 측면에서도 장소 동사 estar 혹은 일반 계사 동사 ser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된다.

### 3. 스페인어의 존재 동사 haber 구문에 대한 통사적 분석 제안

스페인어 문법에서 Haber 동사는 예외적으로 비인칭 구문을 유도하는 특수 구문으로 분석되어왔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볼 때 스페인어의 존재 haber 동사는 비인칭 동사

로부터 유래하는 특수 동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haber 동사의 통사적 특징을 새롭게 분석하고 그 파생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Freeze (1992)는 장소, 존재, 소유 구문은 동일 구조에서 파생되며 장소 구문에서 Theme이 주어위치로 이동, 장소 구문이 파생되는 반면, 존재 구문이나 소유 구문에서는 존재를 나타내는 명사구나 소유자의 인상을 통해 문이 형성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소 영 (2009)에서 우리는 스페인어의 존재 동사 haber 역시 영어의 be 동사에 해당되는 일반 계사 ser 동사 구문에서 파생된다는 점을 제안했다. 그러나 중세 스페인어 자료들을 분석해볼 때 언급한 기존 분석들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스페인어 존재 동사 haber 구문을 새롭게 접근해보고자 한다.

### 3.1 존재 동사 haber 구문 파생과정에 관한 제안

스페인어 존재 동사 haber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의 be 동사 즉 일반 계사 형태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 동사로부터 파생된다는 점을 가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정은 근본적으로 다음 중세 스페인어 자료에 근거한다.

고어 스페인어에서부터 스페인어의 haber, tener 동사는 서로 동일한 구문에 사용되어 왔다. 즉 현대 스페인어에서 존재 haber 동사는 비 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고어 스페인어에서는 소유 동사로 사용되었다. Bello (1981)가 지적했듯이, haber는 그 어원에서 소유의미를 표현했으며 현대 스페인어에서는 시에서 사용되곤 한다.

- (11) Héroes hubieron Inglaterra y Francia. (Bello, p. 319)  
 ‘Heros HABER England and France’

소유 동사로서의 haber 용법과 존재 비인칭으로서의 haber 동사 용법이 16, 17세기 동안 공존했다. 반면에 비인칭 동사와 존재 자동사 용법은 18세기에서부터 20세기까지 공존했다.

이러한 역사적 자료는 중남미 스페인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중남미 스페인어에서 5세기 동안 haber 용법 변화 과정을 연구한 Fontanella de Weinberg (1992)가 제시하고 있듯이, 소유 의미의 haber 용법은 16, 17세기 동안에 낮은 빈도수로, 18세기와 19세기 초에 유지되었다.

- (12) a. una hija natural avida en una india (1587).  
 ‘A daughter natural HABER in a india’  
 b. os aian y tengan por tal rregidor (1664)

‘you HABER and have by that governor’  
(Fontanella de Weinberg, 1992, p.39)

16, 17세기 동안 역시 시제 구문에서 비인칭으로 사용된 haber 구문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두 세기에는 haber 동사만 언급한 구문에서 사용되는 반면 18세기에는 hacer 동사로 대체된다. 19세기에는 여전히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haber 동사가 산발적으로 사용되었다. 즉, 16세기부터 현재까지 존재 비 인칭 구문 용법은 지속된다.

- (13) a. Vino por este puerto con frailes *avra* quatro o cinco años (1607).  
‘Came by this door with monks will be four or five years’  
b. publicada en Río de J. no *ha* muchos años (1844).  
‘Published in Río of J. no HABER many years’  
(Fontanella de Weinberg, 1992, p.38)

중세 스페인어 자료들을 연구한 Herrero Ruiz de Loizaga (2008)에 따르면 오늘날 스페인어에서 사용되는 HABER 존재 동사 직설법 현재형 hay 형태는 15세기에 굳어졌다. 즉 이때부터 존재 동사 haber 형태에 y 형태가 출현하게 된다. Herrero Ruiz de Loizaga (2008)는 15세기 작품들 중 Corbacho (Cor) (1438), Andanzas e viajes (AV) (1453-1457), Cárcel de amor (CA) (1492), La Celestina (Cel) (1502)를 선정하여 중세 시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Corbacho에서는 hay 형태가 주로 사용되긴 했지만 여전히 ha와 hay가 교체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나머지 분석 자료들 즉 Andanzas e viajes de Tafur, la Cárcel del amor y la Celestina에서 ha 형태는 직설법 현재 존재 구문에서는 배제된다. 즉 소유 동사로 사용되는 haber 형태는 존재 동사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직설법 현재형에 존재 접어 y를 붙이기 시작했고 오늘날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haber 동사가 존재 동사로 사용되기 시작할 무렵에는 후치 명사구가 한정성을 지닐 수 있었는데 이 때 역시 명사구는 동사에 후치해서 나타난다.

- (14) Y no solamente hay esta dubda, pero otras muchas (CA, p.95)  
‘And no only HABER this doubt but other many’

또한 haber 동사가 존재로 사용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타동사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음을 다음 자료들을 통해 볼 수 있다. 존재 haber의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일 가능성은, Hernández Díaz (2006)이 제안한 것과 반대로, 16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언어 초창기부터 발견되었다. 적어도 13세기 자료들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Hernández Díaz (2006)이 제시하는 다음 네 개의 자료들에서 나타난다(Corbacho, Andanzas, viajes, Celestina).

(15) Aquí non comen pan, que non lo hay, sinon arroz con leche de camellos. (AV, p.167)

‘Here no eat bread, that no it HABER, if no rice with milk of camel’

Corbacho에서 살펴보면, 대명사에 의해 지시받는 요소를 반복하는 명사이든 혹은 명사 기능을 수행하는 부정사 요소이든 간에 존재 haber 구문에 3인칭 접어가 나타나는 3개의 경우 중 2개 구문에서 직접 목적어가 외현적으로 나타난다.

(16) Sy la criatura poco o mucho juicio tiene, non la ay criatura que non aya conocimiento que faze mal o bien (Cor, p.211)

‘If the creature a little or many judgment have, no it HABER creature that no HABER knowledge that makes bad or good’

haber 동사를 수반한 존재 구문은 정착기에 접어들면서 한정성 후치 명사구를 허용하지 않게 된다. 이때 역시 한정성 명사구와 사용될 때와 마찬가지로 후치 명사구만을 허용한다. 즉 현대 스페인어에서 부정관사, 양화사 등만이 후치명사구로 오고 있지만 한정성을 허용했던 중세 시기에도 명사구는 후치해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시적 자료에 근거하여 스페인어 존재 동사 haber에 관한 다음 분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소유 동사로 사용되던 haber 형태가 존재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15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문법 요소 *y*는 어휘부로부터 생성되어 동사 파생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가정하고자 한다. 즉, 이와 같은 접어 형태 *y*로 인해 스페인어에서 haber 동사가 소유 의미에서 존재 의미로의 의미 변화를 겪게 된다고 본다. 스페인어 언어사 자료를 통해 어휘 파생구조를 살펴보면 haber 동사는 원래 소유를 의미하는 소유동사였는데 *ha* 형태가 존재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접어형태 *y*가 동사 *ha*에 붙게 된다. 즉, 처음에는 소유 동사로 사용될 때와 마찬가지로 *ha*로 쓰이다가 점차 *hay* 형태로 변해왔다. 이러한 접어 형태 *y*는 직설법 현재형에만 음성적으로 실현되어 나타나며 과거, 미래 등 다른 시제에서는 외현적으로 출현하지 않는다. 이때 존재 haber 동사는 시제와 상관없이 수 일치에 있어서 단수 형태만을 지닌다.

- (17) a. Hay unas chicas en la habitación. (직설법 현재 구문)  
 ‘(There) are some girls in the room’  
 b. Había unas chicas en la habitación. (직설법 불완료 과거 구문)  
 ‘(There) were some girls in the room’  
 c. Habrá unas chicas en la habitación. (직설법 단순 미래 구문)  
 ‘(There) will be some girls in the room’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스페인어에서 동사가 시제 활용 어미를 반드시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당연한 현상이다. 즉 과거 혹은 미래 시제 활용형을 어미에 수반하기 위해 동사의 어근 형태 *hab-*가 그대로 도입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직설법 현재 시제를 제외한 과거, 미래 등의 시제에 외현적으로는 실현되지 않지만 추상적 형태로 언급한 접어 *y*가 존재 동사 어휘 형성에 도입된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 내에서 직설법 현재 변화형에 사용되는 접어 *y* 형태가 음성적으로 실현되거나 혹은 외현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추상적 형태로 존재 동사 *haber* 파생과정에 개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정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중세 스페인어에서 소유 의미만을 표현하던 *haber* 동사가 존재 의미를 나타내게 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접어 *y*를 수반하게 되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중세시대부터 등장한 이러한 접어 *y*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라틴어 단어에서 파생된 불어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라틴어 *HABĒRE*에서 파생된 스페인어 존재 동사 *hay*와 불어의 존재 동사 구문 *il y a*는 통사적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문법 요소로 이해된다.

- (18) a. Hay dos libros en la mesa.  
 ‘(There) are two books in the table’  
 b. Il y a des enfants là-bas.  
 ‘EXPL. LOC-CL has-3SG. some kids over there’  
 “There are some kids over there”

불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영주어 언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존재구문에서 허사 출현을 요구하게 된다. 예문 (18b)에서 *Il*은 이러한 허사형태에 해당된다. 허사 다음으로 등장하는 형태소 *y*는 존재 의미를 내포하는 접어로 정의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같은 라틴어 단어로부터 파생된 두 언어의 존재 동사는 존재 접어 *y*를 내포한다는 점이다. 즉 불어의 존재 접어 *y*와 유사하게 스페인어에서 *haber* 동사는 소유 의미에서 존재 의미를 표현하게 되면서 역시 접어 *y* 형태를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직설법 현재형에 접어 *y*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스페인어의 다른 동사 변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존

재 접어 *y*를 내포하는 두 언어의 존재 구문은 후치하는 의미적 주어와의 수 일치에 있어서 비 인칭 형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 (19) a. Hay una manzana en la mesa.  
 b. Hay dos manzanas en la mesa.
- (20) a. There is a apple in the table.  
 b. There are two apples in the table.
- (21) a. Il y a un chat dans la voiture.  
 “There is a cat in the car”  
 b. Il y a des chats dans la voiture.  
 “There are some cats in the car”

위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영어 존재 구문에서 동사는 의미적 주어와 수 일치하는 반면 존재 접어 *y*를 수반하는 스페인어, 불어의 존재 구문에서 동사는 후치한 의미적 주어와 수 일치를 이루지 않는다. 불어가 영어와 마찬가지로 영 주어 언어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양 언어에서 허사구문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상당히 흥미롭다. 위 예문들 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스페인어 *hay* 구문이나 불어 *Il y a* 구문에서 존재 접어 *y*는 문을 비인칭 구문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스페인어의 *haber* 파생과정에 외현적 혹은 추상적 존재 접어 *y*가 생성된다는 점을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언급한 스페인어 존재 동사 *haber*는 소유 동사 *tener*로의 외현적 혹은 추상적 존재 접어 *y*의 부가를 통해 파생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일반 계사 형태인 *ser*나 *estar*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되는 소유 동사로부터 파생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Freeze (1992)가 장소, 존재, 소유 구문을 동일 구조로 분석한 이래 스페인어의 존재 동사 *haber* 구문은 영어의 존재 *be* 동사 구문에 비교되어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중세 스페인어 자료 및 현대 스페인어 자료들을 분석해볼 때 이러한 분석은 문제점을 지닌다. 우리의 관점 하에서 볼 때 스페인어의 존재 동사 *haber*는 영어의 *be*에 해당되는 *ser*, *estar*와 같은 동사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 동사로부터 존재 접어 *y*의 부가를 통해 형성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 존재 동사 *haber* 구문에서 존재 접어 *y*는 문을 비인칭 구문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일한 라틴어 동사 *HABĒRE*에서 파생된 스페인어 *hay* 구문과 불어 *Il y a* 구문이 보여주듯이 존재 접어 *y*를 수반하는 동사는 문을 비인칭 형태로 유도한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는 스페인어에서 외현적 혹은 추상적 존재 접어 *y*가 문을 비인칭 구문으로 전환시켜 준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들은 통사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그리고 스페인어의 존

재 동사 *haber*는 어떠한 통사적 구조 내에서 파생되는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유 동사는 다른 타동사들과 달리 일련의 연계사 형태에 불과하다는 Bach (1967)과 Guéron (1986)의 관점에 근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소유 동사가 두 명사를 연결해주는 연계사로 정의된다는 분석은 Llorach (1984)의 스페인어 자료 분석에서도 제시되었다. 즉, 이들 분석에 따르면 소유 동사는 일반 타동사로부터 구별되며 기능에 있어서 두 명사구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스페인어에서 소유 동사 *tener*가 일반 타동사가 아니라 연계사로서 소절 구조를 지닌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동사는 연계사로서 문에 의미를 부여해주지 못하므로 소절을 보어로 취함으로써 소절 내부의 소유자와 피소유자 간에 설정되는 의미 관계로부터 소유문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Ritter & Rosen, 1997, Uriagereka, 1997). 다시 말해 소유 구문이 내포하는 소유 의미는 동사가 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어인 소절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스페인어에서 소유 동사가 연계사로서 소절을 보어로 취한다는 관점에 근거해서 본 연구에서는 연계사 형태로 정의되는 소유 동사에 외현적 혹은 추상적 접어 형태 *y*가 부가됨으로써 존재 동사 *haber* 형태가 파생된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접어 *y*는 어디에서 생성되는가? 이에 관해 우리는 어휘부로부터 소절의 핵으로 소절 내에 생성되는 것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소절 내에서 생성된 존재 접어는 문의 소유 의미를 존재 의미로 전화해주는 요소로 정의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역사적, 통사적 자료에 기초하여 우리는 스페인어에서 존재 *haber* 동사는 소유 동사로의 외현적 혹은 추상적 접어 *y*형태의 부가를 통해 파생되는 데 이때 언급한 접어는 어휘부로부터 소유 동사 보어인 소절 내에서 생성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소절 내에 생성됨으로써 언급한 소절이 소유 의미로부터 존재 의미로 의미적 변화를 겪도록 유도한다. 존재 접어 *y*가 소절로부터 연계사로 정의되는 소유 동사로 부가됨으로써 현대 스페인어의 존재 동사 *haber*가 파생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존재 접어 *y*가 소절로부터 소유 동사 즉 연계사로 부가됨으로써 *haber* 동사를 파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동사 형태는 다시 기능 핵 *T*로의 부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또한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존재 접어 *y*가 어휘부로부터 비 인칭 자질을 내포한 채로 파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질을 내포하는 접어 *y*는 기능 핵 *T*로 부가되고 이로 인해 동사는 자신의 의미적 주어와 수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즉, 스페인어의 다른 일반 동사 구문에서 기능 핵 *T*가 지니는 확대투사원리 자질은 동사의 *T*로의 인상, 부가를 통해 만족되는 반면 비 인칭 구문을 유도하는 *haber* 구문의 경우 소유 동사에 부가된 접어 *y*가 동사와 더불어 기능 핵 *T*에 부가됨으로써 확대 투사 원리 자질을 만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접어가 기능 핵 *T*의 확대투사원리 자질을 만족시킨다는 분석은 Chomsky (1998)이 제시하는 아이슬란드어 자료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 (22) Hafði peim virst [Ólafur vera gáfaður]?

'Had to him(Dat) seemed to Ólafur(Nom) be intelligent'

(Chomsky, 1998, p.19)

Chomsky (1998)에 따르면 외현적 허사가 부재하는 아이슬란드어와 같은 언어에서 기능 핵 T의 확대투사원리 자질은 동사 인상과 더불어 수반되는 접어 인상, 부가를 통해 만족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측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유 동사에 부가된 접어 y가 동사와 더불어 기능 핵 T에 부가함으로써 확대투사원리 자질을 만족하고 의미적 주어 명사구와 수 일치를 이루지 못하도록 유도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존재 동사 haber는 소유 동사로부터 파생됨으로써 영어 be 구문에 사용되는 다른 스페인어 동사들로부터 구별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통사적 파생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현대 스페인어에서 언급한 두 구문이 통사적으로 어떠한 연계성을 지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 3.2 현대 스페인어에서 존재 동사 haber 구문과 소유 동사 tener 구문간의 구문적 연계성 분석

현대 스페인어에서 존재 haber 동사와 소유 tener 동사 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통사적 유사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스페인어 소유동사 tener 동사는 존재 동사 haber와 마찬가지로 다른 일반 동사들에서와 달리 자신의 목적어로 한정성 속성을 주로 허용하지 않는 대신 부정관사를 사용하거나 혹은 관사 없이 복수형으로 사용한다.

## (23) a. Hay (un/ algún/ \*cada/ \*todo/ \*el) niño en el jardín.

'(There) is (a/ some/ \*each/ \*every/ \*the) boy in the garden'

## b. (#un/ #algún/ cada/ todo/ el) niño está en el jardín.

' (#a/ #some/ each/ every/ the) boy is in the garden'

## (24) a. Hay (un niño/ algún niño/ \*Juan/ \*cada niño/ \*el niño) en el jardín.

'(There) is (a boy/ some boy/ \*John/ \*each boy/ \*every boy/ \*the boy) in the garden'

## c. (#un/ #algún/ cada/ todo/ el) niño está en el jardín.

## (25) a. Hay una ventana encima de mi cama.

'(There)'s a/ one window above mi bed'

## b. \*Una ventana está encima de la cama.

'\*A/ \*One window is above mi bed'

## c. \*Dos armarios están enfrente de la cama.

‘\*Two armoires are in front of my bed’  
(Mangialavori Rasia, 2012, pp.1-4)

위 예문들 간의 대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존재 동사 haber 구문은 강한 양화사로 분류되는 cada, todo와 한정사를 후치 명사구에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장소 동사인 estar 동사는 한정 명사구를 수반할 수 있다.

존재 동사 haber와 연계성을 형성하는 tener 동사의 명사적 보어는 한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지적되어왔다 (Mangialavori Rasia, 2012).

- (26) a. Eliza has (a/ three/ some/  $\emptyset$ ) sister(s).  
 b. Eliza has \*Joan.  
 c. Eliza has (\*every/ \*the/ \*each) sister(s).
- (27) a. Eliza tiene (una/ tres/ alguna/ algunas) hermana(s).  
 b. \*Eliza tiene Juana.  
 c. Eliza tiene (\*todas/ \*toda/ \*la/ \*cada) hermanas.  
 (Mangialavori Rasia, 2012, p.10)
- (28) a. Los peces tienen ( $\emptyset$ / \*las/ \*todas las) escamas.  
 b. Los peces tienen ( $\emptyset$ / \*las/ \*?todas las) escamas elasmoides.  
 c. Los peces tienen (\* $\emptyset$ / las/ todas las) escamas erizadas.  
 d. Los peces tienen ( $\emptyset$ / \*las/ \*?todas las) escamas elasmoides.
- (29) a. Fishes have ( $\emptyset$ / \*the/ \*every) scales.  
 b. Fishes have ( $\emptyset$ / \*the/ \*every) elasmoid scales.  
 c. Fishes have (\* $\emptyset$ / the/ every) scale(s) lifted.  
 d. Fishes have ( $\emptyset$ / \*the/ \*every) lifted scales.  
 (Mangialavori Rasia, 2012, p.11)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두 동사는 또한 사람이 목적어가 되는 경우에도 대격 전치사 a도 허용하지 않는다.

- (30) a. \*Tengo a hija. ‘(I) have PREP daughter’  
 b. Tengo hija. ‘(I) have daughter’
- (31) a. \*Hay a niña en la casa.  
 ‘(There) is PREP daughter in the house’  
 b. Hay niña in the house. ‘(There) is daughter in the house’

이러한 존재 동사 *haber*와 소유 동사 *tener* 간의 또 다른 통사적 연계성으로 관계문 자료들을 들 수 있다. 다음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존재 동사 *haber* 구문은 관계 대명사 제한적 용법 구문에서는 한정사를 허용한다(Escandell Vidal & Leonetti, 1998).<sup>2)</sup>

(32) a. el monumento que hay junto al parque.

‘the monument that is near to park’

b. \*Junto al parque hay el monumento.

‘Near to park is the monument’

(33) a. los cuadros que había en el salón.

‘the pictures that was in the lounge’

b. \*En el salón había los cuadros.

‘In the lounge was the pictures’

(34) a. esos libros que hay sobre la mesa.

‘That books that is on the table’

b. \*Sobre la mesa hay esos libros.

‘On the table is that books’

(Escandell Vidal & Leonetti, 1998, p.262)

위 구문에서 관계사는 *haber* 동사의 목적어 위치에 연계된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스페인어 *haber* 동사는 후치 명사구에 한정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관계사 구문에서는 한정성 즉 정관사나 지시사 등과 함께 올 수 있다. 하지만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사라진다.

(35) a. \*el monumento, que hay junto al parque.

‘the monument, that is near to park’

b. \*los cuadros, que hay en el salón.

‘the pictures, that was in the lounge’

c. \*esos libros, que hay sobre la mesa.

‘That books, that is on the table’

(Escandell Vidal & Leonetti, 1998, p.263)

2) 이러한 구문에 관한 통사적 분석은 종속절로부터 명사구 이동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관계 문이 형성된다는 Kayne (1994) 분석을 적용해볼 수 있다. Kayne에 따르면 관계문은 다음 구조에서 파생된다.

(i) a. the [CP [NP picture<sub>j</sub>] [that [IP Bill saw [e]<sub>j</sub> ...]]].

이러한 구문적 특징들은 한정성 효과를 보이는 스페인어의 소유 동사 *tener* 구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36) a. Tener muchos parientes/ paciencia/ un coche/ varios gatos.  
 ‘Have many relatives/ patience/ a car/ several cats’  
 b. María tiene \*los parientes/ \*la paciencia/ ?el coche/ ?el gato.  
 ‘María has \* relatives/ \*the patience/ ?the car/ ?the cats’
- (37) a. los parientes/ la paciencia/ el coche/ el gato que tiene María.  
 ‘the relatives/ the patience/ the car/ the cat that has María.  
 b. \*los parientes/ \*la paciencia/ \*el coche/ \*el gato, que tiene María.  
 ‘the relatives/ the patience/ the car/ the cat, that has María.  
 (Escandell Vidal & Leonetti, 1998, p.266)

그러나 한정성 효과를 지니지 않는 또 다른 *be* 형태인 스페인어의 장소 동사 *estar* 구문에서는 설명적 용법이 가능하다.

- (38) a. el monumento, que está junto al parque,  
 ‘the monument, that ESTAR(is) near to park’  
 b. los cuadros, que están en el salón,  
 ‘the pictures, that ESTAR(was) in the lounge’  
 c. esos libros, que están sobre la mesa,  
 ‘That books, that ESTAR (is) on the table’  
 (Escandell Vidal & Leonetti, 1998, p.266)

존재 동사와 소유 동사 간에 설정되는 통사적 연계성은 아랍어와 같은 다른 언어 자료를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다(Contreras & Gràcia, 2005).

- (39) a. Fi l+bayti rajulu+n. (존재문)  
 ‘in the + house man+a’  
 b. Al+kitabu fi l+maktabati. (장소문)  
 ‘the+book in the+library’  
 c. Lī (=li + ni) kitabu+n. (소유문)  
 ‘for + I book+a’  
 (Contreras & Gràcia, 2005, p.70).

(39a)와 같은 존재 구문들에서 장소 전치사구는 (in the house) 부정 명사구 앞에 (a man) 위치한다. 반면에 (39b)와 같은 장소 구문들에서 한정 명사구 (the book)는 장소구 (in the library) 앞에 나타난다. 소유 구문들은 (39c)에서 볼 수 있듯이 존재 구문과 동일한 구조를 지닌다.

그렇다면 통사적으로 존재 동사 haber와 소유 동사 tener는 통사적으로 동일하게 분석되는가? 실제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부차적인 술부가 삽입될 때 소유 동사 tener 구문의 경우 한정사가 등장할 수 있다.

- (40) a. Tener (\*el) sueño/ (\*las) ganas/ (\*la) fiaca.  
 ‘Have (\*the) dream/ (\*the) desire/ (\*the) laziness’  
 b. Tener el/ \*∅ sueño liviano.  
 ‘HAVE the/ \*∅ dream fickle’  
 c. Tener \*los/ ∅/ algunos sueño liviano.  
 ‘HAVE \*the/ ∅/ some dream fickle’  
 (Mangialavori Rasia, 2012, p.11)

그러나 이와 같이 부차적 술부를 수반하는 소유 구문에서 한정성이 허용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소유 동사 자체의 속성이라기보다는 명사구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명사구가 인접어를 통해 의미 제한을 받게 되므로 명사구는 한정성을 수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에서 명사가 형용사, 전치사 de, 관계 형용사와 같은 인접어로 수식받을 경우 명사구는 일반적으로 한정사를 수반하게 된다.

- (41) a. Me compro el libro blanco.  
 ‘(to) me buy the book white’  
 b. Te traigo el libro de Juan.  
 ‘(to) you bring the book of Juan’  
 c. Te regalo el libro que me cambió la vida.  
 ‘(to you) present the book that (to) me changed the life’

위 예문이 보여주듯이 소유 구문이 아니더라도 스페인어에서 명사구는 자신의 의미를 제한해주는 인접 요소로 수식받을 경우 한정사를 수반하게 된다. 여기서 존재 동사 haber가 이와 같이 인접어를 수반한 한정 명사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더 많은 연구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대 스페인어의 존재 동사 haber가 소유 동

사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한정성 허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에서 한정성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존재 동사 *haber* 구문에서 나타나는 한정성 효과는 존재 구문 특징이 아니라 언급한 동사가 소유 동사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영 주어 언어에 속하며 구문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언어로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어 존재 구문 자료를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Leonetti, 2006, Mangialavori Rasia, 2012, p.11).

(42) a. C è il sole.

“There is the sun”

e. C’era il sole da anni.

“There was the sun for years”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탈리아어 존재 구문은 한정성 효과에 전혀 영향 받지 않는다. 즉 언급한 구문에서 한정 명사구는 인접요소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

#### 4. 결론

스페인어 문법에서 예외적 동사로 다루어 온 존재 동사 *haber* 구문은 제 2 외국어로 스페인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구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자료에 대한 고찰 및 통사적 분석을 통해 언급한 구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 파생과정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소유 동사로 사용되던 *haber* 동사가 존재 의미를 수반하기 시작하던 15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문법 요소 *y*는 어휘부로부터 생성되어 존재 동사 파생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이러한 외현적 혹은 추상적 접어 *y*로 인해 스페인어에서 *haber* 동사가 소유 의미에서 존재 의미로의 의미 변화를 겪게 된다.

결과적으로 스페인어의 존재 동사 *haber*는 영어의 *be*동사 구문에 해당되는 스페인어의 일반 계사 동사 *ser*나 장소 동사 *estar*로부터 의미적, 통사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된다. 즉 스페인어 존재 동사 *haber*는 영어의 *be*에 해당되는 *ser* 혹은 *estar* 동사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 동사 *tener*로의 접어 *y*의 부가를 통해 파생된다. 이러한 접어 *y*를 내포하는 동사 형태는 기능 핵 T에 부가됨으로써 문을 비인칭으로 유도한다.

## 참고문헌

- 서소영. (2009). 스페인어의 존재 구문에 관한 연구. *언어학*, 17(4), 125-141.
- Alarcos Llorach, E. (1984).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Madrid: Editorial Grados.
- Bach, E. (1967). HAVE and BE in English syntax. *Language*, 43, 462-485.
- Bello, A. (1981).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Tenerife: Cabildo Insular de Tenerife.
- Chomsky, N. (1998). Minimalist inquiries.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5, 1-61.
- Contreras, J. M., & Gràcia, L. (2005). Variación Gramatical y Segundas Lenguas. El uso de SER, ESTAR, HABER y tercer en el Español de algunas comunidades inmigradas, *Glosas Didácticas*, 15, 65-73.
- Escandell Vidal, M. V., & Leonetti, V. (1998). Construcciones Existenciales y Oraciones de Relativo, *Atti del XXI Congresso Internazionale di Linguistica e Filologia Romanza*,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 Fontanella de Weinberg, M. B. (1992). Variación sincrónica y diacrónica de las construcciones con Haber en el español americano, *BFUCh*, 33, 35-46.
- Freeze, R. (1992). Existentials and other locatives. *Language*, 68, 553-595.
- Gili Gaya, S. (1986). *Curso Superior de Syntaxis Española*, Barcelona: Spes.
- Guéron, J. (1986). Le verbe AVOIR. *Recherches Linguistiques de Vincennes*, 14/15, 155-186.
- Harley, H. (1996). Events, agents and the interpretation of VP-shells. Unpublished manuscript, MIT.
- Hernández Díaz, A. (2006). Posesión y existencia. La competencia de *haber* y *tener* y *haber existencial*, C. Company Company (dir.), *Syntaxis histórica de la lengua española, Primera parte: La frase verbal*, 2,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055-1160.
- Herrero Ruiz de Loizaga, F.J. (2008). HABER, SER y ESTAR como verbos de Existencia en el siglo XV, *Actas del XXXVII Simposio Internacional de la Sociedad Española de Lingüística (SEL)*, Pamplona: Servicio de Publicaciones de la Universidad de Navarra, 341-353.
- Hornstein, N., Rosen, S., & Uriagereka, J. (1994). Integrals, Unpublished

- manuscript, University of Maryland.
- Kayne, R. (1993). Toward a modular theory of auxiliary selection. *Studia Linguistica*, 47, 3-31.
- Kayne, R.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 Leonetti. (2006). Sobre la restricción de definitud con tener, *Actas del VII Congreso de Lingüística General*, Barcelona: Universidad de Barcelona.
- Lyons, J. (1967). A note on possessive, existential, and locative sentences. *Foundations of Language*, 3, 300-396.
- Lyons, J. (1968). Existence, location, possession and transitivity. In B. van Rootselaar y T.F. Staal (Eds.), *Logic, methodology, and philosophy of science* (pp. 495-509). Amsterdam: North-Holland.
- Mangialavori Rasia, M. E. (2012). Existenciales con HABER y TENER: Los Efectos Léxicos de la definitud. Unpublished manuscript.
- Marantz, A. (2007). Phases and words, In S. H. Choe (Ed.), *Phases in the theory of grammar* (pp. 191-220), Seoul: Dong In.
- Ritter, E., & Rosen, S. T. (1997). The Function of HAVE. *Lingua*, 101, 295-321.
- Sánchez López, C. (1999). Los cuantificadores: clases de cuantificadores y estructuras cuantificativas, I. Bosque y V. Demonte (dir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Real Academia Española, 1, 1025-1128.
- Uriagereka, J. (1997). From BEING to HAVING: Questions about ontology from a Kayne/Szabolcsi syntax.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ryland.

<중세 참고 자료>

- Alfonso Martínez de Toledo. (1398 - 1468). *Arcipreste de Talavera o Corbacho* (1438).
- Diego de San Pedro. (1450 - 1498), *Cárcel de amor* (1492).
- Fernando de Rojas (1470-1541). *La Celestina* (Comedia, 1499; Tragicomedia, 1502)
- Pedro Tafur (1410-1487), *Andanzas e viajes*, (1453-1457).

**서소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스페인, 중남미 어문학과

전화: (063) 270-3279

이메일: [soyoungseo@chonbuk.ac.kr](mailto:soyoungseo@chonbuk.ac.kr)

Received on June 30, 2014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2, 2014

Accepted on September 11, 2014